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64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7월 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청주공단에 신규지회 생겼다!

드디어 청주공단에도 지회 설립

대전충북지부에 막내지회가 생겼다. 청주공단에 위치한 코스모촉매 소속 노동자 24명이 5월 28일 금속노조에 가입하며 지회를 설립했다. 코스모촉매는 전체 직원 40여명 중 현장직이 24명인 사업장으로 현장직 전원이 가입한 것이다. 하이닉스 투쟁 이후 10여년만에 청주공단에 다시 금속노조의 깃발이 휘날리게 됐다.

회사는 경영진이 말아먹고 노동자만 정리해고 시도

코스모촉매지회 동지들은 구조조정 위협 속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과거에는 나름대로 잘나가는 회사였다.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상여금, 학자금 등 복지 수준이 낮지 않았다. 그런데 코스모그룹이 사업을 확장하다 실패하면서 계속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 임금도 4개월 가량 체불되고 있다. 노동자들만 쥐어짜이고 있었던 것이다. 무능한 경영진은 여기다 한 술 더 떠서 희망퇴직, 권고사직을 하겠다며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측은 정신 못차리고 있다. 지회 설립 이후에 권고사직을 실시하고 있다. 코스모촉매지회 동지들의 결의는 확고하다. 단 한명이라도 소중한 동지고 동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살고 함께 가기로 결의했다. 코스모촉매 자본은 왜 노조가 만들어졌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음편한 일터 만들자!

지회 동지들은 회사의 적자 타령에 한동안 임금인상도 없이 4개월씩 체불돼가면서도 참아왔다. 이제는 더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코스모촉매지회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일터, 노동자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것이다. 이제 첫 걸음을 뗐다. 신규지회 동지들이 당당한 걸음 이어갈 수 있도록 지부의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자. 청주공단에 금속노조 깃발이 당당히 휘날리게 만들자.

노조파괴 범죄자 보쉬전장 사업주 엄벌하라!

보쉬전장 대표이사가 노조파괴 범행을 벌인 사업주로서 처음 법의 심판을 받는다. 대전지방법원은 7월 7일(화) 보쉬전장 사업주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한 재판을 열고 선고할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이만행 보쉬전장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하고 그 외 관리자 3인에게 징역 6월에서 8월 징역형을, 보쉬전장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금속노조는 1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화운 보쉬전장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갑을오토텍 사태에서 보듯 불법 노조파괴 행위가 점점 폭력적인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며 “검찰이 자본의 불법행위를 불기소해 눈을 감고 법원은 미미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운 지회장은 “법원은 자본이 불법 폭력으로 더 날뛰지 못하도록 노조파괴에 범죄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하라!

보쉬전장 노조파괴 재판 선고

○ 일시 : 7월 7일(화)
○ 장소 : 대전지방법원

임단투 승리!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교섭위원 현장순회

* 일시 : 7월 9일(목) ~ 10일(금)
* 장소 : 전 지회